

긴 기다림 끝에 봄이 오는가 싶더니 춘사월에 눈이 내리는 등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폭설이 내리는 겨울과 뜨겁고 긴 여름만 남고 생동감 넘치는 봄과 파란 하늘의 가을이 사라지고 있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우리나라'는 이제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게 됐다.

에너지 절약이 우리의 미래...

일본의 유명한 발명가 후지무라 야스유키는 그의 책인 '플러그를 뽑으면 지구가 아름답다.'에서 "사람이 전기를 낳았다. 전기가 편리를 낳았다. 편리가 비만을 낳았다."라고 했다. 지금 각종 첨단 전자제품을 비롯해 우리가 추구해왔던 편리함과 빠름은 비만을 넘어 재앙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의 4차 보고서(2007년)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 0.74도, 해수면은 17cm 상승했다. 또 이러한 추세가 지속한다면 21세기 말에는 지구의 평균기온은 최대 6.4도, 해수면은 59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준규
서울신문 기자

이러한 예측에도 우리는 아직도 탄소배출권과 지구온난화 등의 이야기를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거리의 상점들은 문을 열어놓고 냉·난방기를 펄펄 가동하고 있으며, 냉장고는 가장 큰 것을 사야 한다는 광고에 이끌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2010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이산화탄소 환산기준으로 6억 6900만 톤이며, 배출량은 세계 7위로 이 순위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 100년 간 평균온도는 1.5도 높아졌으며, 이는 지구 평균의

2배에 이른다. 또 제주지역 해수면은 지난 40년간 22cm 상승했고 이는 세계 평균의 3배나 높은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진행속도는 세계 평균을 넘어서며 심각할 정도로 빠르다.

이 같은 속도로 변화가 진행된다면 2100년에는 우리나라의 낮 최고기온이 25도 이상인 여름 일수가 1년에 174.9일이나 될 것이라 한다. 1년 절반가량이 여름이라는 것이다. 또 낮 최고기온이 33도가 넘는 폭염 일수는 83.4일, 열대야는 81.9일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80~90년 후,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우리나라는 잠 못 드는 열대야가 3달간이나 지속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다.

환경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운동이 필수다. 무분별한 에너지 낭비는 2011년 9월 15일 블랙아웃(대규모 정전)과 같은 사회적 재앙뿐 아니라 환경적 재앙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연탄과 석유난로, 선풍기가 전기난로와 에어컨으로 대체되면서 2000년대 후반부터 전력 소비량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다. 또 값싼 전기요금도 원인이다.

정부는 이처럼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고자 원자력발전소를 비롯 석탄과 가스 발전소를 잇달아 짓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따라가기에는 무리다.

따라서 정부는 여름과 겨울철 에너지절약운동을 대대적으로 펴고 있다. 지난해 6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하계 전력수급대책을 실시해 약 9억 4800만kW의 절전효과를 거뒀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340억 원에 달한다고 당시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는 평가했다. 보통 100만kW급 석탄 화력발전소 2기 발전량을 아낀 셈이다.

여기에 화력발전소 1기 건설비용 2조 5000억 원, 모두 5조 원의 사회적 비용과 엄청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다. 이것이 우리가 조금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이다.

인류와 지구라는 거창한 명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귀찮음을 감수하고 좀 더 느린 것, 좀 더 불편한 것을 찾아보자. 점심시간 컴퓨터의 전원을 끄고 휴대폰 충전이 끝나면 충전기를 뽑아두는 것, 종이컵 사용을 자제하고 머그잔을 사용하는 등의 작은 일부터 실천하자. 더 나아가 후지무라 야스유키는 그의 책에서 우리에게 진공청소기와 비데, 전기밥솥이 꼭 필요한 것인가를 묻고 있다. 싸리 빗자루, 압력 밥솥은 어떨까. 물론 많이 번거롭겠지만 이런 나의 실천으로 우리 아이들이 봄날의 벚꽃을 즐길 수 있게 된다면 충분히 의미 있지 않을까 싶다. 